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 대조분석*

정 환 승**

I.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다.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 한국어는 어휘적 사동과 형태적 사동, 그리고 통사적 사동으로 실현되는 데 비해 태국어는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실현되며 형태적 사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는 교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태국어는 어형의 변화가 없는 고립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동표현은 그 언어의 언어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Aspect)와 관련하여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국어의 경우 형태적 사동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반면에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나 의도성 사동과 비의도성 사동의 의미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태국어의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경우에는 어휘적 사동은 일률적으로 직접사동과 비의도성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통사적 사동에서는 별개의 형식을 통하여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의도성 사동과 비의도성 사동의 의미를 각기 다르게 나타낸다. 또한 일상 언어 사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주동문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태국어에서는 사동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동법은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동의 개념과 사동의 실현 방법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에 나타나는 특징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언어의 가장 자연스러운 조건은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형식, 하나의 형식에 하나의 의미를 유지한다(Bolinger 1977).” 는 전제 아래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이 각각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의미차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의미적 특징과 형태적 제약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어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연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언어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사동의 개념

사동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동자(causer)가 피사동자(causee)로 하여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Comrie(1989)는 사동(causative)을 각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사건을 갖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동주(cause)가 피사동주(causee)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태의 일종으로서 사동주가 행하는 사건은 원인을 나타내며 선행문으로 실현되고 피사동주가 행하는 사건은 결과를 나타내며 후행문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표현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생성의미론에 따른 어휘분석을 통해 사동술어인 CAUSATIVE 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kill' : [x [CAUSE x [BECOME [NOT [ALIVE y]]]]

b. 'die' : [x [BECOME [NOT [ALIVE y]]]]

이러한 사동에 대한 개념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국어 사동 동사에 대해서 최현배(1971:410)는 월의 입자가 직접으로 비탕스런(실질적)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꼴스런(형식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를 이룬다고 했다. 허웅(1975:168-169)은 사동을 하임의 주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며 실제 행동은 하임의 주체가 아닌 시킴을 받는 인물이 한다고 정의하였다. 김차균(1980)은 피사역 내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역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수동과 사동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이익섭, 임홍빈(1983)은 사동은 사동주가 수동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태의 일종으로 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권재일(1992:155)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복합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태국어의 사동 연구는 프라야움빠깃찐라빠싼(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1990: 119), 감차이 텡라(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1997: 235-254)와 같은 전통주의 문법학자들은 조동사 ให้/haj/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법으로 받아들여졌다. 반쭝 판투메타(บรรจง พันธุมธา 1985: 171-175)도 기존의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ให้/haj/사동구문의 의미를 좀더 세분하여 '시킴과 허락 그리고 통제'의 세 가지로 분석하였으나 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라싸미(Rasami Vichit-Vadkan 1976: 456-476)는 태국어의 사동문을 *vn/tham/*, *ไห้/haj/*, *vnไห้/thamhaj/*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여 의도성 사동과 비의도성 사동을 구분하였다. 또한 위파(*วิภา วงศ์สันติวิชัย* 1983)는 라싸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동을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의미상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태국의 단일 어휘에 의해 실현되는 어휘적 사동을 연구하면서 사동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정환승(2000)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어의 사동에 대해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동문을 기술하면서 태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을 구성하는 것은 *vn/tham/* 구문임을 밝히고 *ไห้/haj/* 구문은 의사사동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vnไห้/thamhaj/* 구문은 사동사 *vn/tham/*과 보문소 *ไห้/haj/*가 직접 결합한 *vn/tham/*구문의 하위 부류임을 밝혀냈다.

Ⅲ.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의 특징과 의미

Comrie(1989)는 사동을 실현시키는 유형에는 어휘적 사동과 형태적 사동 그리고 통사적 사동으로 분류하였다. 최현배(1971)는 사동보조어간을 사용하는 첫째 하임법과 ‘시키다에 의한 둘째 하임법 그리고 ‘게 하다에 의한 셋째 하임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태국어에서는 단일 어휘인 사동사에 의해 실현되는 어휘적 사동과 *vn/tham/*, *ไห้/haj/*, *vnไห้/thamhaj/*에 의해 실현되는 통사적 사동으로 분류한다.¹⁾

송창선(1998: 19-21)은 한국어의 태(voice)에 대한 인식이 서구어처럼 철저하지 못하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행위자 중심의 표현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 발화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하는 장면의존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1) 태국어에서는 형태적 사동을 사동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a. 나 이 집 짓고 애로가 컸다.
b. 머리 깎으러 갑니다.

위의 문장 (2)는 모두 형태상 주동문처럼 쓰였으나 실제 의미는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문장 (2a)의 의미는 자신이 직접 머리를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발사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를 깎게 하겠다는 것이며 (2b)의 의미는 자신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집을 지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태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다음은 태국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3) ไป ด หมอ
paj du: mo:
가다 보다 접생이
점 보러 간다.

(4) ไป ตรวจ โรค
paj tuat rok
가다 검사하다 병
진찰 받으러 간다.

위의 문장들은 형태상으로 보아 S+Vt+O 의 형식을 갖춘 타동문이며 형식상으로 주동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문장들은 실제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5) ให้ หมอ ดู โชคชะตา ให้ ตน
haj mo: du: chokchata: haj ton

사동 점쟁이 보다 운명 -주다 자신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보게 하다’

(6) ให้ หมอ ย ตรวจ โรค ให้ ตน
 haj mo:ja tuat rok haj ton
 사동 의사 검사하다 병 -주다 자신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진찰하게 하다’

문장 (3)(4)와 같은 표현들이 태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다(위파 1983:6-7). 이는 태국어의 사동 표현 중에서 화자와 청자가 상황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반쭝(1978)은 이를 “서로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 연결체”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동 표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서 사동 표현으로 다루는 경우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은 상황에 의존하여 사용하는 관용구로 처리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 실현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1. 어휘적 사동

어휘적 사동은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에 의해 사동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동사에는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비사동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테면 영어의 “call” “die” 또는 한국어의 “보내다”와 “가다” 등이 그것이다.

- (7) a. 아버지는 아들을 서울로 보냈다.
 b. 아들은 서울로 갔다.
- a. 나는 동생에게 공부를 시킨다.
 b. 동생은 공부를 한다.

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사동사에는 ‘시키다’ 외에 ‘조종하다, 보내다, 주다/끼치다, 없애다’ 등이 있다(김형배 1997:34).

그러나 이러한 사동사들을 일반 타동사와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송창선(1998: 26-27)은 사동과 타동의 개념을 지동과 타동, 능동과 수동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면서 타동성은 의미적인 면에서 서술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주어인 행위주로부터 목적어인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타동사의 경우에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의 자발적인 의지를 고려할 여지가 없는 반면에 사동사의 경우에는 시킴을 받는 피사동주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사동주의 의미적 자질은 [+유정성이어야 한다.²⁾ 한편 송복승(1987), 이향천(1991) 등은 사동을 한 사태를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태를 원인과 결과로 짝지워 주는 구조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을 기술한 위파(1983)의 사동에 대한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위파에 따르면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은 일부

2) 김정대(1988)에서도 사동주와 피사동주 모두가 유정물이어야 하고 피사동주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행위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태국어에 적용시킬 경우에 태국어의 사동사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타동사가 두 가지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문장의 내용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동 표현이 실현된다.³⁾

(7)a. ສາມາດ	ຫັກ	ກິ່ງໄມ້
som ³⁵ ɰɔ	hak	kiŋ ³⁵ maɰ
쏟잉	부러뜨리다	나뭇가지
쏟잉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b. ກິ່ງໄມ້	ຫັກ
kiŋ ³⁵ maɰ	hak
나뭇가지 부러지다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문장 (7a)에서 동사 **ຫັກ/hak/**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주어인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이지만 의미상으로 목적어에 대해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사동사의 성격을 갖게 된다. 위의 문장 (7a)에서 **쏟잉**은 나뭇가지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로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인과 관계를 갖는 두 가지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동 표현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3)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립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가 형태의 변화 없이 사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어에 나타나는 어휘적 사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hou	qi	qiang-yuan
두껍게 하다	그	벽돌-들
그 벽돌들을 두껍게 한다.		

위의 예문에서 **hou**는 일반적으로 ‘두껍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거나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사동문을 실현시키는 사동사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동사의 의미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적 사동에서는 대개가 어떤 사건의 결과를 나타낸다 (Charles 1976: 478-480).

일반적으로 사동과 수동은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법 범주로 분류된다. 그런데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상태성 수동 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환승(2000)은 그 이유를 태국어에서 적지 않은 사동사들이 중립 동사(middleverb)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⁴⁾

국어의 중립 동사 구문을 연구한 연재훈(1989: 165-189)이 제시하는 중립 동사 구문의 판별 기준을 태국어에 적용시켰을 경우에 나타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⁵⁾

(8) a. แม่ ตำ พรึก
 mac tam phrik
 어머니 빵다 고추
 어머니가 고추를 빵는다.

b. พรึก ตำ (ลงมือ)
 phrik tam laiat
 고추 빵다 굽다
 고추가 (굽게) 빵아 졌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동문 (8a)에 대응하는 자동문 (8b)가 상대적 수동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의미적 관계를 살펴 보기

4) 정환승(2000)은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사동사에는 중립동사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니따야(นิดยา กาญจนวรรณ 1970)는 태국어의 사동사 연구에서 787개의 타동사 목록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중에 중립동사는 72개에 달한다.

5) 통사적 기준은 중립 동사는 자동사문 구조와 타동사문 구조에 형태 변화 없이 나타내며,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 사이에 동일한 명사 분포를 갖는다는 것이다.

위해 중립 동사를 구별하는 의미적 기준을⁶⁾ 적용시켜 중립 동사의 타동문 (8a)를 **ทำให้/thamhaj/** 구문으로 환언(paraphrase)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⁷⁾

(9)	แม่	ทำให้	พริก	ตำ
	mae	thamhaj	phrik	tam
	어머니	[사동]	고추	빻다
	어머니가 고추가 빻아지게 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의 어휘적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상태성 수동이다. 그러나 어휘적 사동이 아닌 일반 타동문은 그와 대응하는 자동문이 상태성 수동문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10) a	เขา	อ่าน	หนังสือ
	khao	an	naŋseu
	그	읽다	책
	그는 책을 읽는다.		

b.	*หนังสือ	อ่าน
	naŋseu	an
	책	읽다
	책이 읽힌다.	

6) 의미적 기준은 중립 동사의 타동사 문의 주어는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의 과정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사동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7) 이는 중립 동사의 타동사 문의 주어가 사동주의 역할을 한다면 목적어의 상태를 변화시켜야하므로 태국어의 사동구문인 **ทำให้/thamhaj/** 구문으로 환언(paraphrase)했을 때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동 표현이 아닌 일반 타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중립 동사의 통사적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 또 문장 (10a)를 *ทำให้/thambaj/* 구문으로 환언하여 의미적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된다.

(10a) *เขา	ทำให้	หนังสือ	อ่าน
khao	thambaj	na[ʃeɐr	an
그	[사동]	책	읽다
그는 책이 읽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타동사 구문의 동사는 대부분 중립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동문은 상대적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⁸⁾

어휘적 사동은 단일 어휘의 의미에 따라 사동표현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으며 문법적 틀에 의해 사동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동법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에 의해 사동표현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⁹⁾ 그러나 이러한 사동들이 한국어에서나 태국어에서 모두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기준을 적용시켜 사동성을 판단해야하므로 일반 타동사와

8) 이러한 중립 동사의 개념과 *ทำให้/thambaj/* 구문으로 환언하는 방법은 위파(1983)가 제시하는 어휘사동의 판별기준보다 훨씬 명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된다. 위파의 판별법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목적어의 상태를 변화 시켰는가 하는 것인데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에는 의미상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9) 이익섭·임홍빈(1983) 등은 한국어에서의 어휘적 사동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휘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사동사를 구분하는 명확한 판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형태적 사동

형태적 사동법이란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고 그 파생동사에 의해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사동법을 말한다. 한국어와 같이 접사에 의해 사동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터키어와 일본어에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Comrie, 1993:309-348).

(11) Hasan ben-ni aga-t-ti
 하산 나-Acc 올다-Caus-Past
 하산이 나를 올렸다.

(12) Taroo-ga Ziroo-o komar-sase-ta
 다루-Nom 지루-Acc 멈추다-Caus-Past
 다루가 지루를 멈추게 했다.

위의 문장 (11)에서 동사 *aga* ‘올다에 사동 접미사 /-t-/가 삽입되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장 (12)에서는 동사 /*komar*/ ‘멈추다에 사동접미사 /-sase-/가 삽입되어 사동 표현을 실현시키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립어에서는 형태적 사동이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사동접사인 ‘이, -하, -라, -기, -우, -구, -추’를 결합하여 형태적 사동을 나타낸다. 김형배(1997: 34-38)는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파생적 사동법과 합성적 사동법으로 나누었다.

- (13) a. 강아지가 죽었다.
b. 철수가 강아지를 죽였다.

- (14) a. 영화가 공부한다.
b. 나는 영화를 공부시킨다.

위의 문장 (13b)는 파생적 사동법인 데 비해 문장 (14b)는 합성적 사동법이다. 파생적 사동법이란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접미사를 결합하여 만든 사동사를 통해 사동법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합성적 사동법이란 주로 ‘하다 류 명사에 ‘시키다 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를 통해 사동법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파생사동사를 파생시킬 수 있는 자동사나 타동사 또는 형용사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사동접사에 의한 형태적 사동은 그 수가 비교적 적고 의미의 변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신(2001)은 한국어 동사 789 개로부터 파생된 한국어 파생사동사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어의 파생사동사는 자동사 206 개에서 파생된 사동사 수가 86 개로 가장 많고 타동사 336 개에서 파생된 사동사는 47 개이다. 형용사 240 개에서 파생된 사동사는 15 개에 그쳤다. 또한 중립동사는 12 개로 나타났다.¹⁰⁾

태국어의 사동법 중에서 형태적 구성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차용어 중에서는 형태적 사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

- (15) a. กำแพง ทรลาย
kamphaeng thalai
담 무너지다
담이 무너졌다.

10) 우형식(1998: 142)은 42개의 사동성 중립동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b. เข	ทำลาย	รถ	แล้ว
khao	thamlaj	rot	laew
그	파괴하다	차	[완료]
그는 차를 폐차시켰다.			

(16) a. อุบัติเหตุ เกิด ขึ้น

ubattihet	kɔ:t	kheun
사고	발생하다	[완료]

b. แม่	เป็น	ผู้กำเนิด	ลูก
mae	pen	phukamneut	luk
엄마	이다	출산자	자식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다.			

위의 문장 (15b)에서 **ทำลาย**는 문장 (15a)의 **ทำลาย**에 접요소 **-า-** 이 삽입되어 사동사로 파생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문장 (16b)에서 **กำเนิด**은 문장 (16a)의 **เกิด**에 접요소 **-าน-** 가 삽입되어 사동사로 파생된 예이다. 정환승(2002: 76-79)은 태국어의 파생어를 기술하면서 파생 사동사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7) 접사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파생어의 예

사동 접요사	사동 파생어	
/ก-/	กราบ	กราบ 엎드려 절하다
/ถ-/	ถล่ม	ถล่ม 무너지다
/บ-/	บังเกิด	บังเกิด 발생시키다
/ผ-/ /ผ-/	ผจง	ผจง 좋게하다
/ประ-/	ประทุษ	ประทุษ 회의하다
/สำ-/	สำนึก	สำนึก 인식하다/깨달다
/-ง-/	ขงัก	ขงัก 돌연 멈추다
/-ณ-/	ผนวก	ผนวก 부가하다
/-ว-/	จ้วยง	จ้วยง 기울다
/ำ-/	ำรง	ำรง 복돋우다
/ำน-/	ำนน	ำนน 패하다
/ำร-/	ำร	ำร 지불하다
		กราด 박아눅다, 길들이다
		ถลอก 벗기다
		ำเพ็ญ 완성시키다
		ผसान 섞다
		ประชิด 다가붙다
		ำทับ 중복하다
		ผงก 고개를 끄덕이다
		ขนาน 명명하다
		ำรง 지내다
		ำนวย 제공하다
		ำร็ 끝내다

그러나 위 (17)에 제시된 파생어는 개개의 어휘가 차용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구조가 따라 들어온 것으로 특정한 단어에서만 결합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으므로 태국어의 문법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태적 사동은 한국어에 있어서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사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형태와 의미 간의 명확한 결합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태국어의 경우에 일부 차용어에 한하여 사동 접미사가 지극히 한정된 어휘와 결합하여 사동표현을 실현시키므로 이를 태국어 문법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3. 통사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란 통사적 장치에 의해 사동 표현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내포어미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에 내포된 구성으로 실현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게 하-, 게 만들-’ 등의 구성이 있다.

- (18) a.-게 하 : 나는 하나를 가게 하였다.
 b.-게 만들- : 나는 하나를 가게 만들었다.
 c.-도록 하 : 나는 하나를 가도록 하였다.
 d.-도록 만들-: 나는 하나를 가도록 만들었다.

김형배(1997)는 위의 사동문 모두를 사동구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비해 서정수(1996: 622-627)는 ‘게 하-, 게 만들-’ 구문만을 사동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순수한 사동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사적 제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제 5 장에서 하기로 한다.

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은 *in/tham/*, *ให้/haj/*, *ให้/thamhaj/* 세 가지로 기술되어 왔으나 정환승(2000)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어의

사동에 대해 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동문을 기술하면서 태국어의 사동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의미차이를 기술하였다.

- (19) น้อง ทำ ต้นไม้ หัก
 no:ŋ tham tonmaj hak
 동생 [사동] 나무 부러지다
 동생은 나무를 부러뜨렸다.

- (20) ครู ให้ นักเรียน ทำ กำปั้น
 khru haj nakrian tham kampan
 선생님 [사동] 학생 하다 숙제
 선생님은 학생에게 숙제를 하게 하셨다.

- (21) เขา ทำให้ งาน เสีย หมด
 khao thamhaj ŋan sia mot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그는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위의 예문 중에서 문장(19) *tham*/ *tham*/ 구문만이 사동문의 조건¹¹⁾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형적 사동이며 지금까지 전형적 사동문으로 다루어졌던 *haij*/ *haj*/ 구문은 수행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사사동으로 분석되었다.

11) 정환승(2000)이 제시하는 사동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의도성 조건: 사동 행위를 수행하는 사동자는 사동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도성이 있어야 한다.
- b. 직접성 조건: 사동자는 피사동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 c. 수행성 조건: 사동자의 사동 행위 이후에 피사동자의 피사동 행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tn*ใน/*thambhai*/ 구문은 사동사 *tn*/*tham*/과 보문소 *ใน*/*hai*/ 가 직접 결합하는 특수한 구문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세가지 형태의 사동문은 형태에 따라 직접성과 간접성, 그리고 의도성과 비의도성 등의 다양한 의미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IV. 사동표현의 직접성과 간접성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에 대한 통사적인 고찰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사동행위의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문제를 대부분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하거나 표면형의 실현형태에 근거하여 직접성과 간접성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형태론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어의 파생사동사는 하나의 어휘로 실현되므로 두 개의 어휘가 연결되어 사동을 나타내는 통사적 사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hibatani(1973)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용어의 중의성 : Shibatani(1973)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그랬다’라는 대용형이 모문(*matrix sentence*)의 명제를 대신하거나 하위문의 명제를 대신하는 중의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 (22) a. 철수가 영화를 올게 하니까 영수도 그랬다.
b. 철수가 영화를 올리니까 영수도 그랬다.
- (23) a. 철수가 영화를 올게 하고 영수도 그랬다.
b. 철수가 영화를 올리고 영수도 그랬다.

이에 대해 양인석(1974)은 이 두 문장 모두 중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사동사의 간접성과 직접성을 구분하기에는 남은 문제가 많다.¹²⁾

2) 재귀대명사의 해석 문제: Shibatani(1973)는 재귀대명사가 통사적 사동에서 사동주나 피사동주를 지시할 수 있는 중의성을 갖지만 형태적 사동에서는 사동주를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24) a. 철수가 영희를 자기의 방에서 자게 했다.

b. 철수가 영희를 자기의 방에서 재웠다.

그러나 이 또한 역시 양인석(1974)은 두 경우 모두 중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사동의 두 가지 형태에 근거한 직접적인 사동과 간접적인 사동의 통사적 논의는 사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형태적 사동은 분명히 하나의 어휘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구성과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근 Shibatani and Chung(2000)에서는 사동문에 나타나는 부사의 수식과 재귀사의 해석이 사동문의 통사구조나 형태와 단순한 일대일 대응관계가 아님을 관찰하고 통사구조나 형태에 따른 단순한 직접적인 사동과 간접적인 사동의 구분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동의 또 다른 범주인 동반사동(*sociative causative*)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동의 범주가 사동해석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또 한국어와 일본어 접사사동에 대한 Yang-Shibatani 의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한국어의 '그랬다와 같은 대응형은 영어의 'do so'와 같이 구성 성분과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의 형상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동반사동 : 야기된 사건의 실행에서 사동주가 피사동주와 물리적으로 동반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회적 사동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행동주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사동과 간접적인 사동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사동의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Shibatani and Chung(2000)은 동반사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중의적인 재귀사 해석을 갖는 두 개의 다른 사건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25) a. 어머니가 큰 아이를 걸리고 작은 아이는 등에 업고 장에 갔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책을 읽혔다.
- c. 어머니가 아이에게 냉방에서 책을 읽혔다.

위의 문장 (25a)는 공동 동작(joint-action)을 나타내는 동반사동으로 직접사동이며 문장 (25b)는 감독(supervision)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반사동으로 또한 직접사동을 표현하는 반면에 문장 (25c)의 경우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장 (25c)에 부사 수식을 통해 직접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5c) 어머니가 아이에게 냉방에서 직접 책을 읽혔다.

사동에 있어서 직접성 혹은 간접성은 사동자가 피사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격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사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형태적 사동이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통사적 사동이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형태적 사동이 반드시 간접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태국어의 사동문에서 어휘적 사동은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통사적 사동은 각 구문마다 다르다. 정환승(2000)은 ‘직접’ 또는 ‘손수의 의미를 가진 부사 **ลง** /eŋ/을 삽입하여 부사의 수식 관계를 통해 직접성 여부를 증명하였다.

(26) a. **สักกะ** **ท่าน** **กระจก** **แตก**
 sakka tham kracok tæk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싹까는 거울을 깨뜨렸다.

b. **สักกะ** **ท่าน** **กระจก** **แตก** **ลง**
 sakka tham kracok tæk eŋ
 싹까 [사동] 거울 깨지다 손수
 싹까는 손수 거울을 깨뜨렸다.

위의 예문 (26b)에서 **ลง**/eŋ/은 **ท่าน**/tham/만을 수식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의미는 **สักกะ**/sakka/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거울이 깨지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27) a. **พ่อแม่** **ให้** **ลูก** **ไปเที่ยว**
 phomae haj luk pajthiaw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부모님은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b. **พ่อแม่** **ให้** **ลูก** **ไปเที่ยว** **ลง**
 phomae haj luk pajthiaw eŋ
 부모 [사동] 자식 놀러가다 손수

부모님은 손수 자녀가 놀러 가게 하신다.

위의 예문 (27b)에서 **เลง/ɛŋ/**은 **ให้/haj/** 또는 **ไปเที่ยว/pajthiaw/**을 수식할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의미는 중의성을 지니게 된다. **เลง/ɛŋ/**이 **ให้/haj/**를 수식하는 경우에 부모의 허락이나 권유에 의해 자녀가 놀러 가는 것이며 **ไปเที่ยว/pajthiaw/**를 수식하는 경우에 보호자 없이 자녀들끼리 놀러 가게 한다는 의미를 기술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녀가 놀러 가는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기술하는 것으로 직접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8) a. **เขากำทำให้ งาน เสียหมด**
 khao thamhaj ɲan sia mot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그는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b. **เขากำทำให้ งาน เสียหมด เลง**
 khao thamhaj ɲan sia mot ɛŋ
 그 [사동] 일 그르치다 모두 손수
 그는 손수 일을 모두 그르치게 만들었다.

위의 예문 (28b)에서 **เลง/ɛŋ/**은 **กำให้/thamhaj/** 또는 **เสีย/sia/**를 수식할 수 있으며 그가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모두를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กำให้/thamhaj/** 구문은 직접성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형태적 사동은 직접 혹은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은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통사적에서는 *in/tham*/구문은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며 *in̄/haj*/구문은 간접사동 의미를 나타내고 *in̄in̄/thamhaj*/구문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V. 사동법의 통사적 제약

서정수(1996: 622-627)는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을 구성하는 ‘게 하, -게 만들’가 이와 유사한 다른 형태로도 사동적 의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약이 필요하고 지적하였다.¹³⁾

- (29) 그들은 친구에게 집에 {a.가게/b.가도록} {만들었다/하였다};
- (30) 그는 사람들이 {들어오게/들어오도록} {a.조치했다/b.문을 열었다/c.비켜섰다}.

위의 예문 (29)에서는 “게를,” “도록”으로 바꾸어도 사동의미가 동일하다. (14)에서는 “만들다/하다” 대신에 (30a), (30b), (30c) 등의 다른 말을 써도 거의 동일한 사동적 의미 효과가 드러난다. ‘게 하, -게 만들’라는 형태는 위에서 보듯이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사동법이 아닌 다른 의미나 기능도 드러내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사동 사동법으로 볼 수 없다.

13) 임흥빈(1976)이나 이익섭/임흥빈(1983) 등에서도 ‘게 하, -게 만들’가 아닌 다른 형태에 의해 나타나는 통사적 사동의 의미가 형태적 사동법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국어에서도 통사적 사동이 실현되기 위한 통사적 제약이 있다. 정환승(200)은 태국어의 *tn/tham/*, *hǎi/haj/*, *tnhǎi/thamhaj/* 사동 구문에서 사동사 제약, 피사동 동사 제약, 그리고 사동보문소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 표현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제약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1. 사동 보조 동사 제약과 사동사 제약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법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첫째 제약 조건은 사동 보조 동사를 “만들다” 와 그 대행 형태인 “하다”로 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동사들은 비록 동일한 의미의 사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사동 보조 동사가 되지 못 한다.

(31) 그가 딸에게 자게 {a.만든다/ b.하다/ c.(?)권유하다/d.(?)달랜다/
e.(?)말한다}.

위의 문장 (31c)-(31d)에서 보듯이 “만들다/하다”가 아닌 다른 형태가 그 자리에 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¹⁴⁾ 사동 보조 동사를 “만들다/하다” 만으로 한정해야 하는 근거는 이를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에 순수한 사동 기능이 아닌 의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국어의 사동사 제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단, 태국어의 사동사는 절을 보충어로 취해야 한다는 제약이 추가된다.

(32) **๓๑** **tn** **๓n** **๓๑ใจ**
 th ɔ: tham chan siacaj
 그녀 [사동] 나 속상하다

14) 이때 “계” 다음에 휴지를 두게 되면 표현상의 어색함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너는 나를 속상하게 대했다.

- (33) **วินัย** **ยิง** **นก** **ตาย**
 winaj jɨŋ nok taj
 위나이 쏘다 새 죽다
 위나이는 새를 쏘아 죽였다.

앞의 예문 (32)는 *vin/tham*/구문으로 타동사 *vin/tham*/이 *ฉันเสียใจ* /*chansiacaj*/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복문을 이룬다. 따라서 문장 (32)는 사동표현을 실현시키는 사동문이 된다. 반면에 위의 문장 (33)은 *ยิง/jɨŋ*/이 *นก/nok*/을 목적으로 취하는 단문으로 일반 타동사 구문이다.¹⁵⁾

또한 태국어에서 사동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vin/tham*/이 보문소 *ให้/haj*/와 직접 결합하여야 한다. 만약 *vin/tham*/이 아닌 일반 타동사가 *ให้/haj*/와 결합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사동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 (34) **แดง** **อนุญาต** **ให้** **ฉัน** **มา**
 daeŋ anujat haj chan ma
 댕 허락하다 [보문소] 나 오다
 댕은 나를 오게 허락했다.

문장 (34)에서 *vin/tham*/이 아닌 *อนุญาต/anujat*/이 *ให้/haj*/와 결합하면서 문장 내용은 순수한 사동의 의미를 벗어나 허락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15) 태국어의 특성상 문장 (33)은 중의성을 지닌 문장으로 '위나이는 새를 쏘아 죽였다' 또는 '위나이는 죽은 새를 쏘았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변한다.¹⁶⁾ 이처럼 태국어의 사동 보문소 **ให้**/haj/는 **มัน**/tham/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의 사동 보조 동사 제약의 또 다른 요건은 “만들다/하다”가 “계”와 비분리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와 사동 보조 동사의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35) 그가 아들 집에서 {a.놀게 했다/b.(?)놀게 말 했다/c.(?) 놀게 말을 했다}.

위의 예문들에서 “계”와 “만들다/하다”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문장의 의미도 순수한 사동의 의미를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태국어의 사동사 제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약이 있다. 즉, 사동사 **มัน**/tham/과 사동 보문소 **ให้**/haj/는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36)	เธอ	มัน	ฉัน	ให้	เสียใจ
	thə:	tham	chan	haj	siacaj
	너	대하다	나	[보문소]	속상하다
	너는 나를 속상하게 대했다.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มัน**/tham/과 **ให้**/haj/ 사이에 명사구 **ฉัน**/chan/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มัน**/tham/의 의미가 나무라다, 비난하다, 대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동의 기능이 아닌 다른 의미가 생겨나서 사동의 범위를 벗어 나게 된다. 또한 기능상으로도 **มัน**/tham/은 **ฉัน**/chan/을

16) 이때의 **ให้**/haj/는 하위문 **ฉัน**/chanma:/를 유도하는 일반 보문소의 기능을 하게 되고 문장의 내용은 ‘허락을 나타내는 일반 타동문’이 된다.

보충어로 취하는 일반 타동 구문이 되며 **ไห้**/haj/는 **vn**/tham/을 수식하는 **เสียดใจ**/sacaj/를 유도하는 일반 보문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는 사동 보조 동사를 “만들다/하다”로 한정하는 사동 보조 동사 제약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태국어의 사동사를 **vn**/tham/으로 한정하는 사동사 제약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사동 보조 동사 “만들다/하다”가 “개”와 비분리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 처럼 태국어의 사동사 제약에서도 사동사 **vn**/tham/과 사동 보문소 **ไห้**/haj/는 분리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사동 동사 제약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법에서 “개”의 앞에 나타나는 문장성분은 [+동사성]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동사성]이란 동사로 분류되는 단어부류와 존재사 “있다”를 포함하며 형용사나 지정사 “이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 (37) 상관이 부하들을 달리게 만들었다.
- (38) 그이는 친구들에게 종교를 믿게 하였다.
- (39) 그이는 친구를 다방에 있게 하였다.
- (40) 그들은 나를 늙게 만들었다.

위의 문장 (37)의 “달리다”는 동작성 동사이며, (38)의 “믿다”는 상태성 동사이다. 이들은 모두 [+동사성]이므로 사동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39)의 “있다”와 (40)의 “늙다”도 동사성을 드러내므로 사동법이 성립된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동사성]의 문장성분이 오게 되면 온전한 사동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피사동 사건이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 (41) 그이는 얼굴을 {a.?²아름답게/b.아름다워지게} {만든다/한다}.

(42) 그이는 답을 {a.?¹⁷높게/b.높이지게} {만든다/한다}.

(43) 그이는 아들이 {a.?¹⁷군인이게/b.군인이 되게} {만들었다/히였다}.

위의 문장 (41a)-(43a)에서 보듯이 “개”의 선행 요소가 [동사성] 일 때에는 그 자체로서는 자연스런 사동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문장 (41b)-(43b)에서처럼 “어 지다”가 첨가되어 동사화가 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동법이 이루어 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장 (43)의 “개”의 앞에 지정사 “이다”가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데 이를 “되다” 로 대체시키면 아주 자연스런 사동문이 된다.¹⁷⁾

한편, 태국어의 경우에 *vin/tham/* 구문에서는 피사동 동사가 자동사만 허락되는 제약이 있는데 이는 *vin/tham/* 구문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 사건이 [의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hǎi/haj/* 구문의 경우 피사동 동사는 상태성 동사가 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이는 *hǎi/haj/* 구문의 사동 사건이 [+의도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vin/hǎi/thamhaj/* 구문에서는 피사동 동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국어의 경우에 피사동 동사가 단지 [+동사성]의 자질만이 요구되는 것은 태국어와 달리 사동문 자체에 [의도성]의 유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사동문을 태국어로 옮길 때 *vin/hǎi/thamhaj/*으로 옮기는 경우에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가장 많은 대응성을 보일 수 있다.

(44) a. 그는 부하들을 달리게 만들었다.

b. เข	vin	ลูกน้อง	วัง
khaw	tham	luknong	wij

17) 이는 지정사는 [동사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사 “이다”는 동사성이 없기 때문에 “개”로 이끌어지는 수식어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그 [사동 부하] 달리다
그는 부하를 (본의 아니게) 달리게 하였다.

c. เข **ให้** ลูกน้อง **วิ่ง**
khaw haj luknoaj winj
그 [사동 부하] 달리다
그는 부하를 (의도적으로) 달리게 하였다.

d. เข **ทำ**ให้ ลูกน้อง **วิ่ง**
khaw thamhaj luknoaj winj
그 [사동 부하] 달리다
그는 부하를(의도적으로/본의 아니게) 달리게 하였다.

위의 한국어 사동문 (44a)에서 그가 부하를 달리게 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태국어의 사동문 (44b)는 사동행위가 비의도적었음을 나타내고 (44c)는 의도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44d)에서는 의도성과 비의도성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의도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한국어의 사동문을 태국어로 옮기는 경우에 **ทำ**/thamhaj/ 구문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피사동 동사 제약은 “**게**”의 앞에 나타나는 문장성분이 [+동사성]의 자질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피사동 행위상 상태나 성질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어의 경우에는 **ทำ**/tham/ 구문에서 피사동 동사가 자동사만 허락되는 제약이 있는데 이는 **ทำ**/tham/ 구문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 사건이 [-의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3. 사동 기능소 제약과 사동 보문소 제약

한국어에서 통사적 사동법의 또 다른 제약은 사동 기능소를 “개”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개”의 자리에 “도록”을 써도 비슷한 사동 기능을 나타내는 수가 있으나 “도록”은 사동표현의 기능보다는 접속 형태의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서정수 1996: 625-626).

- (45) 그들은 사람들이 시위를 {a.못하게/b.못하도록} {만들었다/하였다}.
 (46) 그는 아이가 일찍 {a.일어나게/b.일어나도록} {깨웠다/소리쳤다/종을 쳤다}.

문장 (47)과 같이 “하다”나 “만들다”가 쓰일 때에는 “개”와 “도록”은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록”이 사동법 기능소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7)에서 보면 “도록”은 사동 조동사가 아닌 다른 구나 문장들과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개”는 그러하지 못하다.¹⁸⁾

이러한 제약은 태국어의 *tham*/ 구문에서 *tham*/이 *hai*/와만 결합하여 순수하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다. 만약 *tham*/이 *hai*/외의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사동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 (48)

แดง	tham	chan	con	sacaj
대	대하다	나	-도록	속상하다
대는 나를 속상하도록 대했다.				

18) “도록”은 본래 접속 형태의 기능을 가진 접속 기능소로 사동법에 한정하여 기능하는 “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49) แดง ให้นัก ชาน เสียใจ
 daeng thai hai chan siacaj
 땡 [사동] [보문소] 나 속상하다.
 땡은 나를 속상하게 했다.

위의 문장 (48)에서는 *vin/tham/*이 접속소 *gan/con/*과 결합하여 *vin/tham/*의 기능이 사동의 범위를 벗어나 '대하다'라는 일반 타동사로 기능하는 반면에 문장 (49)에서는 *hai/hai/*와 결합하여 순수하게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사동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사동 기능소는 “개”로 한정되며 태국어에서 *vin/tham/*과 결합하는 보문소는 *hai/hai/*로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와 태국어의 사동표현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적 사동은 단일 어휘의 의미에 따라 사동표현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으며 문법적 틀에 의해 사동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동법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에 의해 사동표현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동들이 한국어에서나 태국어에서 모두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기준을 적용시켜 사동성을 판단해야하므로 일반 타동사와 어휘적 사동을 실현시키는 사동사를 구분하는 명확한 판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형태적 사동은 한국어에 있어서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사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형태와 의미 간의 명확한 결합관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태국어의 경우에 일부 차용어에 한하여 사동 접요사가 지극히 한정된 어휘와 결합하여 사동표현을 실현시키므로 이를 태국어 문법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통사적 사동에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내포어미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에 내포된 구성으로 실현되며 이러한 구성으로 ‘게 하, 게 만들’ 등의 구성이 있다. 태국어에서는 *vn/tham/* 구문이 전형적 사동이며 *ไห้/haì/* 구문은 의사 사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vnไห้/thamhaì/* 구문은 사동사 *vn/tham/*과 보문소 *ไห้/haì/* 가 직접 결합하는 특수한 구문으로 분석되었다.

직접성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형태적 사동은 직접 혹은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태국어에서 어휘적 사동은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에서는 *vn/tham/* 구문은 직접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며 *ไห้/haì/* 구문은 간접사동 의미를 나타내고 *vnไห้/thamhaì/* 구문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의미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와 태국어의 통사적 사동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사동 보조 동사 제약에 있어서 순수한 사동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사동 보조 동사는 “만들다/하다”로 한정되는 것과 같이 태국어의 사동사는 *vn/tham/*으로 한정되며 태국어의 경우 사동사 *vn/tham/*이 절을 보충어로 취해야 한다는 제약이 하나 더 있다. 또한 한국어의 사동 보조 동사 “만들다/하다”가 “재”와 비분리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태국어의 사동사 *vn/tham/*과 사동 보문소 *ไห้/haì/*도 분리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2) 한국어의 피사동 동사 제약과 태국어의 피사동 동사 제약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지 않다.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법에서 “재”의

앞에 나타나는 문장성분은 [+동사성]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비해 태국어의 경우에 *vn/tham/* 구문에서는 피사동 동사가 자동사만 허락되는 제약이 있다. 또한 *ṽ/haj/* 구문의 경우 피사동 동사는 상태성 동사가 오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vnṽ/thamhaj/* 구문에서는 피사동 동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러한 까닭은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에서는 [의도성]의 유무가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태국어의 통사적 사동에서는 [의도성]의 유무가 형태적으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한국어의 사동 기능소 제약에서 사동 기능소는 “개”로 한정된다. 따라서 “개”의 자리에 “도록” 을 사용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국어의 *vn/tham/* 구문에서 *vn/tham/*이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합할 수 있는 접속소는 *ṽ/haj/*로 한정된다. 따라서 만약 *vn/tham/*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면 사동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자연언어가 지닌 보편성을 설명하고 아울러 개별 언어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 태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 학습자에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사동표현을 모국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태국어의 사동법,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분석, 사동표현

참고 문헌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권재일 .1994. “사동법 실현 방법의 역사.” 『한글』 211. 한글학회.
- 김윤신. 2001. “과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대. 1988. “사동 논의에 대한 반성.” 『어문논집』 3. 경남대 국어교육학회.
- _____. 1989. “ ‘게 하다’ 사동구문의 기저구조(1).” 『경남어문논집』 제 2 집.
- 김종택. 1982. 『국어 화용론』, 형설 출판사.
- 김차균. 1980. “국어의 사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168 한글학회
- 김형배. 1994. “한국어 사동법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 『건국어문학』 제 17,18 합집.
- _____. 1997. 『국어의 사동사 연구』. 박이정.
- 서정수. 1996. 『현대국어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송복승. 1987. “국어 사동사 과생과 사동문 생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서.
- 송창선. 1998. 『국어 사동법 연구』. 홍문각.
- 양인석. 1974. “Two Causative in Korean.” 『어학 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관한 연구.” 『한글』 203 호 한글학회.
- _____. 1991. “The Interaction of the causative/passive and neutral-verb construction in Korean.” 『언어 연구』 제 3 집. 서울대학교 언어 연구회.
- 연재훈. 1992. “Causative and Related Issues: A Typological Approach.” 『언어 연구』 제 6 집. 서울대학교 언어 연구회.
- 우형식. 1998. 『국어 동사구문의 분석』. 태학사

- 우형식. 1990.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향천. 1991. “수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홍빈. 1976. “부사화와 대상성.” 『국어학』 4. 국어학회.
- 정환승. 2000. “태국어의 사동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현대태국어문법론』. 삼지사.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네번째고침판). 정음문화사.
- 허용. 1975. 『우리말본』. 샘문화사.
-
- Boliner, Dwight. 1954. “English Prosodic Stress and Spanish Sentence Order.”
Hispania 37:152-156
- Comrie, Bernard. 1989. *Language Universal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_____. 1993. “Causative Verb Formation and Other Verb-deriving Morphology” in
Shopen Timothy (eds.)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les, N. Li and Sandra A. Thompson. 1976. “Development of The causative in
Mandarin Chinese: Interaction of Diachronic Process in Sytax” in Shibatani,
Masayosi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pp.
476-491.
- Jackendoff, Ray. 1994. *Patterns in the Mind Language and Human Nature*. Harper
Conllings Publishers.
- Kingkam, Thepkanjana. 198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hai”,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Lyons, John.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sami ,Vichit-Vadkan. 1976. "The Concept of Inadvertence in Thai Periphrastic Causative Constructions" in Shibatani, Masayosi (ed.) *Syntax and semantics*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pp. 459-475.
- Salee, Sriphe. 1982. "The Thai Verb Phras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Shibatani, Masayosi. 1976.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 A Conspectus." *Syntax and semantic*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pp. 1-39.
- กาญจนา นาคสกุล. 1982. *รวมเสียงภาษาไทย*.(태국어의 음성체계).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๒๕๒๕.
- กำชัย ทองหล่อ. 1997.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 문법). 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 รวมสาส์น. ๒๕๔๐.
- นิตยา กาญจนวรรณ 1970 *กริยากรรม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타동사)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 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 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๒๕๑๓.
- บรรจบ พันธุเมธา. 1985. *ลักษณะ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형태) กรุงเทพฯ : โรงพิมพ์มหาวิทยาลัยรามคำแหง. ๒๕๒๘.
- พระยาอุปกิตศิลปสาร. 1968. *หลัก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문법) กรุงเทพฯ :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๑๑.
- วิภา วงศ์สันติวินช. 1983. "คำกริยกริต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의 사동사) วิทยานิพนธ์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ภาษาศาสตร์ บัณฑิต- 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 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26.
- อรทัย เดชธำรง. 1970. "หน้าที่ของคำกริยา ให้ ในภาษาไทย". (태국어동사 haj 의 기능) วิทยานิพนธ์ ปริญญาโทบัณฑิต ภาควิชา ภาษาไทย 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2513.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ausative Expressions in Korean and Thai

JUNG, Hwan-Se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scribe, analyze, and compare causative expression and make sure it's common feature and difference that appear causative expressions of Korean and Thai languag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Lexical Causativeness come true as simple vocabulary in the meaning, so both Korean and Thai language have low productivity. These is not deal with category of causative mood but come true causative expressions by some incomplete intransitive verb in the of causative meaning. These verb that come true formal causativeness usually has a character of middle verb in Thai language.

Morphological causativeness shows with causative affix ‘-이(i)-, -히(hi)-, -리(lee)-, -기(gi)-, -우(woo)-, -구(goo)-, -추(chu)-’ in Korean language In Thai language however, causative affix unite minimal word in some loan words.

Syntactic causativeness has come true as in syntax “만들다 (mandulda) / 하다 hada)” in Korean language and /tham/, /haj/, /thamhaj/ in Thai language. But they need several limitations in these syntactic causativeness. Besides, there is not formal directness and indirectness in

causativeness in Korean language but in case of Thai language syntax /tham/ means direct causativeness /haj/ structure means indirect causativeness. And syntax /thamhaj/ means not only direct causativeness but also indirect causativeness. There are some Syntactic Restrictions in Korean and Thai Causative.

We can describe characters of individual language as well as universality of natural language through these studies. Making a progress, it can be useful to make sure that not only Korean Thai-language learner as a foreign language but also Thai- Korean language learner as a foreign language understand complicated causative expressions more easily which based on this study on structure of their mother tongue.

Key Words : Thai causative, Korean causative, Comparative analysis, Causative expression.